원행 스님, 박수 속 총무원장 임기 마무리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9월 28일 퇴임식
원력 모아낸 성과에 주목
"초심으로 수행정진하겠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사부대중의 아낌없는 박수 속에 4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사부대중의 아낌없는 박수 속에 4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2018년 출범한 36대 집행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초유의 위기상황에도 한국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원력을 모아내는 등 쉽지 않은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행 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한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저는 이제 다시 산으로 돌아가 초심의 자세로 수행정진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은 9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퇴임식을 거행했다. 종단 내부 행사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36대 집행부와 함께한 소임자 스님들과 새롭게 출범하는 37대 집행부 교역직 종무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원로회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도 함께해 원행 스님의 노고와 성과를 치하하고 축하를 전했다.

퇴임식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4년간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화합으로 종단 안정을 이끌고 종단 숙원불사를 잇따라 화향하는 등 쉼없이 정진해 온 노고에 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아쉬움도 컸다. 대중들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의 송별사에 맞춰 "원행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를 외치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 치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그동안 이루어온 기적과 그 수확을 확인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원행 스님은 지난 2018년 취임 후 화합과 혁신이 미래불교라는 서원으로 종단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초석마련을 위해 진력했고, 코로나19라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서 종단을 잘 이끌어 왔다"고 치하했다.

특히 "수확의 결실인 열매를 얻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때로 시절인연이 허락되고 모두의 화합이 있어야 진정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오늘 우리는 원행 스님과 36대 집행부가 수확한 수많은 결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임기는 4년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종단 발전이라는 원력으로 실천해 오신 노고의 시간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기에, 그 원력과 노고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원 대종사는 '회자정리 거자필반' 의미를 짚으며 "함께할수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다. 새로운 세상에서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길에서 계속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퇴임사에서 함께한 대중들에 대한 남다른 감사와 소회를 전했다. "많은 격려와 협조로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예를 올린다"며 합장인사로 말문을 연 스님은 대중의 박수에 "감회가 새롭다"며 미소로 화답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단상에 서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백만원력결집불사가 적지 않은 성과를 냈고 순항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지휘 하에 종단이 더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여려분들 역시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부대중은 범해 스님의 선창에 따라 "원행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를 재차 외치며 원행 스님의 임기 마지막을 함께했다. 퇴임식 후 모두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가벼운 걸음으로 일주문 밖을 나서는 원행 스님을 대중들이 합장한 채 배웅했다.

불교계 복지관, 노인의날 기념행사 '풍성'

가을맞이 여행 · 템플스테이
국악공연 및 공모전도 이어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9월 29일, 노인의 날을 맞아 진행될 10월 한 달간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을 열었다.

10월 경로의 달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10월 21일까지 약 한달간 풍성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고금(古今), 옛것을 즐겨요' 주제로 열리는 행사들은 문화향유를 통해 옛스러움을 지금의 정취로 다시금 느껴보는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5일과 11일, 13일 세차례에 걸쳐 강릉과 단양을 여행하며 10월 4일과 11일, 18일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템플스테이는 문화체험과 명상, 차담 등으로 꾸려진다.

지역 어르신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도 열린다. 10월 13일과 14일에는 센터 1층 주차장에서 나눔바자회와 함께 지역의 농산물을 소개하는 상생부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2층 로비에서는 짚풀 꼬기, 가훈 써주기 등 옛것을 다시 배워볼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부스도 함께 한다.

관장 희유 스님은 "수확의 계절, 노인의 날과 더불어 축하공연, 프로그램, 여행 등 어르신들을 위해 의미 있는 순간을 남겨드리고자 한다"면서 "옛것의 정취를 다시금 느껴보며 또 다른 특별한 지금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6220-8500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신재원)은 10월 5일 오후 1시,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개원 19주년 및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9988해피투게더'를 개최한다.

'녹색광진그린나루'를 주제로 열리 '9988해피투게더'는 환경 및 건강을 생각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지역문제(쓰레기 줄이기) 해결을 위해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환경 운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건강 부스가 운영된다. 02)466-6242

판교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 등 성남시 내 노인복지관들은 10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성남시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초청,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갖는다. 국악 및 트로트 공연에 이어 노인복지유공 표창, 경로헌장 및 노인강령 낭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031)620-2810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주지 혜철)은 노인인권존중대회 공모전을 개최, 관내에서 이용자간 상호존중, 인권보호, 배려 등에 대한 수기를 공모하고 우수작 5편에 대해 10월 7일 발표회를 갖는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법화종 총본산 안정사, 종단 품으로…정상화 종결

총무원, 9월 28일 안정사 회복 착수
집행관 대동해 고시문 게재
불법점거 상태 사실상 해제
"총본산 위상도 되찾을 것"
총무원장 직무정지도 기각



법화종 정상화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총본산 안정사가 종단 품으로 돌아왔다. 총무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관과 함께 안정사에 진입,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무단점거를 해제시키고 종무 방해금지 고시문을 게재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해종세력으로 치탈도첩된 前종회의장 성운(심재학) 스님 등이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상대로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기각됨에 따라, 모든 논란이 종결돼 종단 정상화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은 9월 28일 종단 총본산 통영 안정사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회복했다.〈사진〉 이날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진과 前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 안정사 주지 원담 스님은 법원 소속 집행관과 경찰관 대동 하에 안정사에 진입해, 총무원 · 주지 직무 방해금지 고시문을 경내에 게재했다. 안정사는 종단 총본산이자 제1종찰이지만, 종단 내부혼란의 여파로 해종세력과 외부인사 등 권한 없는 이들에 의해 불법점거된 후 회복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이에 총무원과 총무원이 공식임명한 주지 원담 스님은 前주지 이재열(승헌, 체탈도첩), 김연기(호암, 승적 없음)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9월 1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가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화종 총무원의 안정사 진입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오랜 세월 방치됐던 안정사가 총본산으로서 사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이런 가운데 前종회의장 성운 스님과 보선 스님이 20대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9월 28일 판결을 통해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 또한 성운 스님 측에서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사유는 심재학(성운 스님)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양형이 과다하게 여겨질 여지가 있어 본안 판결을 지켜본다는 취지"라며 "관효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것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성운 스님 등에 내려진 징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관효 스님의 총무원장으로서 정당성을 재확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과 안정사 회복으로 남은 과제들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니 이제 정상화 과제는 완수했다. 남은 것은 종단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고민과 실천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지희 기자

불교계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불교기후행동 · 사노위 등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



"지구 이러다 다 죽어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규모 행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된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행사에 동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호소했다.〈사진〉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불교기후행동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불교단체들은 9월 24일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9 · 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기후위기 정책 전환에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진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만 5000명, 경찰추산 1만 명이 참가했다.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 스님과 순례단장 법관 스님 등은 목탁을 치고 지구 모양 연등을 든 채 행진에 참여했다.

집회에 앞서 불교기후행동은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부스를 설치하고 지구연등을 제작하며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또 기후위기 정책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환경 보호를 염원하는 108배를 올리며 부처님 가르침을 시민들에게 전했다.

불교기후행동은 상임대표 일문 스님은 "불교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2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2 생명살림 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0월 25일(화) 오전 10시 (법문 11시 20분)
◈ 장 소 : 수원 봉녕사
◈ 내 용 : 기도 · 염불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선업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장, 불교상담개발원장)
◈ 문 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